

3월 2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2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부실자산 해소 기대’ 뉴욕 7% 폭등</p>	<p>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왔던 금융권의 부실자산 해소와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한 랠리를 촉발. 금융주가 강세를 나타내며 지수 상승을 주도. 재무부는 이날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최대 1조달러 규모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민간투자프로그램 (PPIP; 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을 발표. 지난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국채 매입 등 공격적인 양적 완화책에 이어 부실자산 해소안이 발표됨에 따라 금융위기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가.</p>
<p>美 2월 기존주택 매매 5.1%↑... '예상 상회'</p>	<p>전미부동산중개인연합회(NAR)는 23일 2월 기존주택 매매가 1월 449만채에서 2월 472만채로 5.1% 증가했다고 발표. 앞서 발표된 블룸버그통신의 전문가 예상치는 0.9% 감소로 발표치는 기존 예상을 큰 폭 상회.</p>
<p>유럽 일제 급등...미국 발 훈풍</p>	<p>미국 재무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조달러 규모의 부실자산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가 폭발적인 랠리를 펼치자 유럽 증시도 동반 급등. 영국 FTSE100지수는 3952.81로 전일대비 2.9% 상승. 독일 DAX30 지수는 4176.37로 2.7%, 프랑스 CAC40 지수는 2869.57로 2.8% 전진. 범유럽 다우존스 스톡스 600 지수는 3% 오른 177.73을 기록.</p>
<p>"독일, 올해 성장률 - 7%까지 추락"</p>	<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2위 은행인 코메르츠뱅크의 요르그 크레머 연구원은 "산업생산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 수준에서 -6~-7%로 낮춘다"고 발표. 앞서 독일 정부 역시 공식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2.25%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p>
<p>中 "美 국채 계속 사겠 다"</p>	<p>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의 외환관리국장이 안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일 계획이라고 발표.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후샤오렌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장 겸 인민은행 부행장은 이날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을 지지하며, 국채 매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p>
<p>中 IMF 출연 의사 밝혀</p>	<p>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후샤오렌 부행장은 "중국은 IMF의 혁신적인 자금 조달 추진을 지지한다"며 "좀더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자금 조달은 IMF의 자금 부족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 이어 "IMF가 직접 채권을 발행한다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매입을 고려하겠다"면서 중국의 기존 입장보다 명확한 의사를 표명</p>

제목	주요 내용
BOJ, 후순위채 매입 관련 14개 은행 소집	예정된 회의에는 3개 대형은행과 3개 주요 신탁은행, 8개 지역은행장들이 참여할 예정. BOJ 고위 관계자는 금리와 대출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대출기구 활용을 고려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 BOJ는 보유 주식 및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은행들의 자본 감소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후순위채 1조원을 매입키로 결정한 바 있음.
이윤호 "3월 사상최대 45억弗 흑자 가능"	이는 3월 무역수지에 대한 정부의 낙관적 전망은 수출이 점차 '바닥 다지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점과 함께 2월에 비해 조업일수가 늘어난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분석됨.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4% 줄어든 181억5,600만 달러, 수입은 40.3%나 급감한 155억5,500만 달러로, 26억1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음.
중소건설사 2~3개 퇴출 전망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의 2차 구조조정 심사 대상인 70개 건설사 중에서 이미 부도난 K사를 포함해 2~3곳이 D등급으로 거론되고 있음. 이중 사주가 행방불명된 한 건설사는 일단 주채권은행 평가에선 등급 보류 결정을 받지만 1주일간의 은행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D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금융권, 스톡옵션 반납 확산	신한금융지주 임직원이 올해 스톡옵션(주식매수 청구권)을 모두 반납키로 한 결정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하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올해 경영진에게 부여될 스톡그랜트(성과연동주식)를 모두 반납하겠다고 23일 발표. KB지주는 지난해 기존의 스톡옵션을 폐지하고, 장기 성과에 연동해 주식을 제공하는 스톡그랜트를 도입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